중소기업 주간 광주·전남 中企발전방안토론회 지상중계

"공장 신축·증설 쉽게 각종규제 풀어달라"

인프라 구축통해 물류비용 절감 해줘야

'BUY-광주·전남' 전개… 판로확대 모색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는 중소기업주간(14~19일)을 맞아 16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 지원방안'에 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장춘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장, 최현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양복완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한충석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금융지원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16일 광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충석 부행장, 강영태 본부장, 장춘상 지회장, 양복완 국장, 최현주 국장.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참 석 자

강영태 중기회 광주전남본부장
장춘상 중기회 광주전남지회장
최현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양복완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한충석 광주은행 부행장

▲강영태 본부장=하남산단·평동공단 등 광주지역 공장부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공장신축이나 증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돼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현주 국장=광주시는 지난해 1천45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다. 올해에도 전 구매액 가운데 95%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각급 기관단체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

▲양복완 국장=전남도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실질적·제도

분쟁 조정 도우미제 검토

적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어음대체제도의 법정 결제기한 초과시 할인료 부과, 기술·영업비밀 탈취금지 및 제재범위 구체화, 분쟁조정 도우미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특히 하도급 실태조사를 2·3차 수급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의 납품단가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충석 부행장=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자금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또 외부차입에 의한 조달도 일정수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광주은행은 환율하락이나 FTA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수출관련 기금 확대, 생산설비개선자금 등을 저리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

▲장춘상 지회장=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중인 공공구매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특히 건설공사 과정에서 레미콘·사무용 가구 등의 건설자재 분리발주가 필수적이다.

▲강 본부장=유가급등과 환율하락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평균 4%대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전환에 따른 시설확충자금을 지

정책자금 금리 4%대 조정을

원할 때 기존의 실적이나 신용평가에 따른 지원보다 미래 사업성, 발전가능성, 기술성 등을 평가에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장 지회장=지자체에서 충분한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각종 규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양 국장=기업사랑운동을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훌륭한 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 기업사랑 토론회·포럼을 지원하며 'BUY-광주·전남' 운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섬사랑' 펜클럽을 결성, 섬 특산품 판매와 관광상품화에 나서며 10월께 외지인사를 명예도민으로 위촉, 전남기업 기 살리기에 앞장서겠다.

▲최 국장=광주의 산업단지는 8개 단지 745만평에 달한다. 이중 575만평은 이미 개발 완료했고, 170만평은 개발 중에 있다. 향후 광주시는 공장부지 추가 확보 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광주기업사랑협의회'와 '기업사랑한마음대회'를 적극 가동해 산업평화 정착과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 부행장=광주은행은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초기 소요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환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 4

창업기업 초기자금지원 확대

월 시설자금지원제도를 개선, 차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5월 지역재단보증과 전자보증협약을 체결,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Q: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값 얼마나 인하되나

A:종전보다 평균 20% 내릴 듯

■ 주택법 개정안 Q&A

17일 입법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는 어느 정도 인하되나.

▲구체적인 분양가격 인하폭은 7월중 기본형건축비 구성내역과 금액, 건축비 가산비 비율 등이 확정된 이후에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외부기관을 통해 2006년 분양가자율화 시기에 분양한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종전보다 평균 20%(16-25%)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면 분양가 상승할 우려가 없나.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범위를 감정가격과 택지가산비를 더한 가격의 120% 이내로 제한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택지를 매입해 분양가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매입가격 인정범위를 법 공포일 이전에는 전액으로 한 이유는.

▲법 공포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를 매입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정했다.

-시군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5% 조정가능 할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기 보다는 명확한 근거없이 인하할 우려가 있지 않나.

▲기본형건축비의 탄력조정은 시군구별로 실제 투입되는 건설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군구청장의 일방적인 제도운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자재별 단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은 당해 기준가격과 지역별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비율에 한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민간 및 공공위원 모두에 대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한정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아파트 분양이 없는 지자체도 설치해야 하는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소요가 발생하는 때인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만 설치하면 된다. 아파트 분양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 과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수뢰·뇌물 공여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벌칙을 적용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위원회의 과도한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심사기간(10일)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분양승인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상반기 취업경쟁률 116대 1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올해 상반기에 공채를 실시했거나 진행중인 대기업 및 공기업 56곳을 상대로 취업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6대 1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업체는 41.0%인 23곳이었으며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선 곳도 9곳이나 됐다. 조사대상 기업 중 공기업의 취업경쟁률 평균은 145대 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가장 입사 경쟁률이 높은 기업은 8명 모집에 5천900명이 몰린 인천항만공사로 741대 1에 달했으며, 한국언론재단은 318대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60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주요 기업의 입사경쟁률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96대 1, 한국가스안전공사 185대 1, 한국조폐공사 173대 1, 두산그룹 150대 1, 기업은행 100대 1, 동부그룹 60대 1, 국민은행 24대 1 등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

3,218만원

올해 대기업에 입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은 평균 3천21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와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www.opensalary.com)는 최근 업종별 매출 10대 기업 130곳 중 87개사를 상대로 '2007년 대졸 초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군필자 기준 초봉 평균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융권 대졸자 초봉이 평균 3천63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3천416만원), 석유화학(3천340만원), 기계·철강·조선·중공업(3천333만원), 정보통신(3천300만원), 공기업(3천244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식·식음료(2천900만원), 전기·전자(2천950만원), 자동차(3천40만원), 물류·운송(3천90만원) 등 업종의 대졸 초임 평균은 전체 평균에 못 미쳤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중 올해 임금협상이 완료된 기업은 57.5%였으며 이들 기업 중 대졸 초임을 작년에 비해 인상한 기업은 64.0%, 동결한 기업은 36.0%였다. /연합뉴스

술마시는 직장여성 35%

"필름 끊긴적 있다"

술을 마시는 직장여성 10명중 3명 이상이 '필름 끊김(블랙아웃)' 등 알코올 의존 초기현상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전문 다사랑병원이 술을 마시는 20-50대 직장여성 170명을 대상으로 '직장여성들의 음주행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블랙아웃, 이른바 '필름 끊김'을 경험했으며 34%는 월 한차례 이상 '과다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4%는 블랙아웃을 정기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장여성의 음주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 의존증 초기증세 중 하나이며, 과다 음주란 술자리에서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을 마시는 상습적 과음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알코올 남용의 초기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음주습관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조사대상자의 30%가 숙취 때문에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업무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37%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대출 경쟁도 넘었다"

금감위원장 은행권 경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권의 외형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대출 급증과 신용카드 회원 유치 등 과당 경쟁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은행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계획을 갖고 해외시장 개척이나 자금운용 다변화 등에 많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시중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문제, 중소기업 대출과 단기 외채의 급증 등 부동산과 금융·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여수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 급락, 금리 상승에 대한 사전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중 변동 금리 상품의 비중이 약 95%에 달해 금리 급등 때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은행 건전성 악화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정 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은행들의 외형 확대 경쟁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감소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외형 확대 차원에서 과당 경쟁을 할 경우 경기 둔화 때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대출 증가에 유의하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이통사 수익성 국내기업 평균의 3배

지난해 국내 이통통신사들이 기록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국내 기업들이 달성한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구를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초과 이윤을 거두고 있는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 여력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16일 이통통신 3사의 작년 재무실적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5.03%로, 국내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5.2%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율로,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잣대다. 지난해 이통 3사가 1천 원어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150원 가량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사별로 SKT는 24.26%로 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으며, LGT가 10.56%, KTF가 10.28%였다. 선발사업자인 SKT의 경우 무려 국내 기업 평균에 비해 5배나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이통 3사는 9.66%로, 국내 기업 평균 5.6%의 2배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T가 18.98%로 가장 높았으며 KTF 7.89%, LGT 2.12%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